

# 공동체 미디어 참여 청소년의 소통행위에 대한 연구

## -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Communicative Action of Youth Participating in Community Media - Focus on Habermas' Communicative Action

유 숙 (Yoo Sook) | 고려대학교 강사 | reginann@naver.com

#### 목 차

- |                       |                          |
|-----------------------|--------------------------|
| 1. 서론                 | 4. 연구결과                  |
| 2. 이론적 배경             | 4.1 사회 규범의 내재화           |
| 2.1 체계/생활체계 그리고 식민화   | 4.2 비판적 자기반성을 통한 식민화의 극복 |
| 2.2 의사소통능력을 통한 식민화 극복 | 4.3 진실성과 상호인정을 갖춘 소통행위   |
| 2.3 청소년과 공동체의 소통      | 5. 결론                    |
|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

#### 초 록

본 연구는 하버마스(J. Habermas)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을 통해 공동체 미디어라는 특수한 집단을 구성하는 청소년의 소통행위를 살펴보고자 청소년과 성인으로 구성된 공동체 미디어 제작 집단의 경험과 인식을 탐구했다. 그 결과, 연구참여 집단에서는 내재된 사회적 규범으로 인한 비합리적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자신들이 성인과 동등한 주체임을 청소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미디어 제작과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청소년에게 일임했다. 또, 하버마스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위한 타당성 요구 중 진실성 부분이 확실히 드러나며 이상적 담화를 위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발견됐다.

\* 키워드 : 공동체 미디어, 청소년 미디어교육, 하버마스, 의사소통 행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arch the communication action of youths who join a community media group through J. Habermas's theory of communication action. Therefore, we studied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a community media production group composed of youths and adults. As a result, irrational communication was taking place in the research participants due to the social norms. However, in an attempt to overcome this problem, adults have left all decisions related to media production to the youth so that they can recognize themselves as equal subjects with adult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truthfulness part of Habermas' request for validity for rational communication is clearly revealed and is causing a change for an ideal discourse.

\* **Keywords** : community media, habermas, communication action, media education for youth

---

## 1. 서론

우리는 사람간의 소통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친근하게 대하며 마음을 열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통왕’이라는 불명예를 안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왜 소통이 중요한가. 사회학자인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에게 있어 사회는 곧 소통이며, 소통은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해가 발생하는 순간 소통이 발생하며, 소통이 발생한 순간 사회가 만들어졌고, 소통을 통해 사회가 분화하고 존속한다(이철, 2015; Luhmann, 2015).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의사소통행위이론>(Habermas, 2006a)을 통해 소통은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상호작용’이며, ‘언어행위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하버마스에게 있어 소통 자체는 개념적인 차원이지만 소통 행위는 사회적 차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소통 행위는 언어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 표현보다 언어행위 과정을 통한 조정에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생각이다.

이러한 소통능력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주체의 정치적 본성이며, 동시에 공동체를 더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다(이희량, 2013).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있어 소통은 구성원들 간의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며, 소통 및 소통능력은 성인들뿐만 아니라 국가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대화 단절과 소통의 부재는 오래 전부터 가정과 사회에서 문제시 되어 왔다(EBS, 2012). 청소년들은 부모나 교사와 같은 성인,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의 소통이 원만하지 않을 때 현실에서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지지를 온라인에서 찾으려 하기도 하지만(나은영, 김은미, 박소라, 2013), 그렇지 않은 경우 자살을 비롯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백민정, 2007).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을 통해 청소년들이 공동체 미디어 제작 과정에서 또래 및 성인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 더 나아가 사회 및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능력을 향상시켜가고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체계/생활세계 그리고 식민화

주체와 객체를 나누어 인간 중심의 주체관을 강조했던 근대 철학을 비판한 하버마스는 언어적 의사소통은 소통 주체의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주체와 객체가 아닌 ‘주체와 주체’의 상호간 이해를 내세운 상호주관성을 통해 철학 내에서 이성의 개념을 확장했다(임순선,

---

2013). 이는 주체로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인간이 객체(다른 인간이나 자연, 사물)를 지배할 수 있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동등한 주체로서 의사소통하고 상호이해를 이뤄나간다는 의미로 발전시킨 것이다.

하버마스는 자신의 저서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막스 베버(Max Weber)의 행위이론을 빌려와 ‘의사소통 행위(Communicative Action)’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베버는 행위의 합리성을 구분하기 위해 목적 합리적 행위, 가치 합리적 행위, 정서적 행위, 전통적 행위로 구별하였지만, 하버마스는 이에 대해 비판했다. 베버의 이론이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것이 아닌, 목적과 수단의 관계만 합리화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버마스는 베버가 행위 체계의 합리화를 목적 합리성의 관점에만 국한하여 발전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 거시적 체계이론과 미시적 행위이론을 결합한 비판이론을 구축하려 했다(박종대, 2001; 박홍원, 2012).

이 과정에서 하버마스는 체계와 생활세계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체계와 생활세계는 하버마스가 제시한 2단계 사회이론의 구성 요소로 의사소통적 행위이론과 사회이론을 연결해주는 개념이다. 여기에 발화행위이론이 접목되면서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 완성되게 된다. 하버마스가 생각하는 소통은 동의를 얻고자 하는 소통인 의사소통 행위와 합목적적 또는 성공지향적 소통인 전략적 행위로 구분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는 상징적 재생산이 중심이 되는 생활세계와 물질적 재생산이 중심이 되는 체계가 함께 존재하는 곳이다(박은미, 2009). 이처럼 체계와 생활세계는 각기 다른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사회를 다른 관점에서 읽어내는 사회질서 또는 사회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생활세계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배경이고, 그 배경은 의심할 여지없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들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보증된 것으로 간주된 확신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의사소통의 주체들은 항상 생활세계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 주체, 즉 의사소통 참여자인 화자와 청자는 생활세계라는 초월론적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참여자들은 상호이해 과정의 매체로서의 언어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세계 밖의 어떤 위치를 취할 수 없다(Habermas, 2006b, p. 206)”고 설명한다.

이러한 체계와 생활세계는 분리될 수도 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체계와 생활세계는, 전자의 복잡성과 후자의 합리성이 증가하면서 각각 분화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서로로부터도 분리된다(Habermas, 2006b, p. 245)”. 사회가 진화하면서 체계의 메커니즘은 복잡해지고 생활세계는 사회체계의 하부체계로 남아 있기 되는데, 이때 체계는 ‘제도’의 이름으로 생활세계에 침투한다. 사회의 이 같은 두 층위에서 행위 조정이 언어에서 조절매체로 바뀔 경우 체계의 화폐와 권력은 생활세계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가 언어적 합의형성 과정을 회피하고 생활세계의 상징적 재생산 논리를 파괴해버리는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일어나게 된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문제를 의사소통 논리에 기초한 합리적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행위라는 사회적 행위 체계의 유형들을 네 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인 목적론적 행위(Teleologisches Handeln)는 목적의 실현을 겨냥하는 것으로, 행위자는 수단과 목적을 효용이나 기대효용의 극대화의 관점에서 선택하고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언어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간접적 상호 이해를 돕는 형식적, 또는 도구적 기능만을 가진다. 두 번째인 규범적 행위(Normenreguliertes Handeln)는 사회적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통의 가치를 따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화된 행동 기대를 충족하는 규범준수가 핵심이다. 이때 언어는 이미 존재하는 규범적 합의를 진술하는 기능만 담당한다. 세 번째는 연극론적 행위(Dramaturgisches Handeln)로 서로가 상대의 관객이 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의도, 생각, 감정 등을 표현하는 상호작용이지만 자발적 표현이 아닌 관객을 염두에 둔 양식화된 표현이다. 언어 역시 자기재현의 기능만 한다. 끝으로 의사소통적 행위(Kommunikatives Handeln)는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가지고 상호 관계를 맺는 주체 간에 직접적 상호 이해를 추구하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박종대, 2001; Habermas, 2006a).

<표 1> 하버마스의 사회적 행위 유형

행위의 종류	언어행위	타당성 요구	생활세계 관련
목적론적 행위	서술적 언어행위	진리성	객관적 세계
규범적 행위	규제적 언어행위	정당성	사회적 세계
연극론적 행위	표현적 언어행위	정직성	주관적 세계
의사소통적 행위		이해가능성	위 세 세계와의 반성적 관계

출처: 임순선 (2013). 하버마스 의사소통 행위이론에 기초한 모-청소년자녀 의사소통행위 분석. 시민청소년학연구, 4(2), 24-50.

특히 의사소통적 행위에서 언어는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데, 이 모델에서만 축소되지 않은 상호이해의 매체로서 언어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는 이에 대해 “화자와 청자는 공동의 상황해석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리 해석된 생활세계의 지평으로부터 객관세계, 사회세계, 주관세계에 있는 어떤 것에 동시에 관계한다. 이렇게 해석에 주안점을 두는 언어이해는 보편화용론을 세우기 위한 여러 노력의 기초가 된다(Habermas, 2006a, p. 169)”고 설명한다.

## 2.2 의사소통능력을 통한 식민화 극복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합리적 소통의 생활세계가 갖는 부담을 줄이고자 체계에 의한 화폐와 권력이 역할을 갖게 됐다. 하지만 체계가 생활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하버마스는 이를 되돌리기 위해 소통합리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하버마스는 합리적 소통 행위를 통해 전략적이고, 도구적이고, 목적합리적인 행위를 고쳐나갈 수 있고, 이를 통해 화폐와 권력에 좌우되는 물질문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영송, 2012). 즉, 이성과 합리성에 따라 의사소통 행위를 함으

---

로써 생활세계가 체계에 의해 식민화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이론>을 통해 보편화용론을 제기했다.

하버마스는 촘스키의 언어능력을 의사소통능력 이론으로 확장함으로써 가능한 발화상황의 일반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기틀을 잡았다. 이를 위해 일상적인 의사소통행위 내에 위치하는 상호이해의 보편적인 조건을 밝히고자 보편화용론을 제시하였는데, 보편화용론은 가능한 발화 상황을 산출하거나 발생시키는 규칙체계를 추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일상적인 언어 사용 상황의 이면에 작동하는 보편적인 전제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보편화용론에 의해 파악된 대화구성의 보편개념들은 언어 상황의 일상적 구조를 산출하는 발화행위, 즉 의사소통 상황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발화행위와 관계된다(김동규, 2009; 박홍원, 2012).

이러한 보편화용론에서 비판적 사회이론의 규범적 토대를 찾기 위해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화 상황을 가정하는데, 이는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 이해가능성에 관한 타당성 요구가 자유롭게 검증받는 상황으로, 우선 진리성은 생활세계의 객관적 세계와 관련되며 발화 내용이 참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정당성은 규범적으로 타당한 내용이어야 하며, 사회적 세계와 관련된다. 진실성의 경우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주관적 세계이다. 마지막으로 이해가능성은 의사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 조건으로 상대의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우미, 2009). 이러한 타당성 요구와 검증이 있어야 상호 간의 이해와 합의를 지향하는 의사소통 행위가 성립된다.

정리하자면 하버마스의 이 같은 화용론적 의사소통 이론과 의사소통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은 대칭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체계에 의한 식민화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며, 여기서 소통 능력과 소통 행위는 계속해서 상호 이해를 지향하며 결합된다. 소통 행위 과정에서 제시되는 타당성 요구들이 문제시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강진숙, 2005).

의사소통 행위이론을 비롯한 소통행위 이론들은 마을 공동체 사업의 실천 이론으로 쓰이며 공동체 미디어에 의해 공동체와 소통의 관계가 매개되는 과정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근거로 작용된다. 공동체 내에서 주체와 객체를 나눠 중심을 차지했던 주체가 사라지고, 그 주체의 자리를 ‘소통’이 차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통행위 이론의 핵심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동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민주적 소통관계를 통해 민주주의가 형성되고, 이와 같이 민주적인 공동체는 민주적 소통구조를 지속하고 확장시킨다(김예란 외, 2017; 채영길 외, 2016).

공동체 미디어는 강요 없이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 해방을 전제로 한 ‘지배 없는 의사소통’과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통해 식민지화된 생활체계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강진숙, 2005; 이정춘, 2003). 따라서 공동체 미디어 제작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적 소통행위를 경험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

## 2.3 청소년과 공동체의 소통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기 전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더 넓은 사회와 만나게 되는 시기이다. 이때 상대와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사회기술인 적절한 의사소통기술을 갖추고 있으면 인간관계를 형성해나가는 데 유익할 수 있다. 하지만 핵가족화나 맞벌이 부부 증가 등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간 관계를 경험하거나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배울 기회가 없는 청소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물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매체는 증가했지만 이는 의사소통의 질적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 중에서는 타인의 생각과 반응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의 상실이 인간관계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두진영, 2008).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집단 내에 존재하는 가치지향을 내면화하고, 일반화하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지배나 훈육의 대상으로 대하기보다는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면서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한다(Gordon, 2002). 이를 위해 의사소통 합리성이 지배하는 생활세계의 개념을 끌어올 수 있지만 대화의 비효율성과 실현 가능성의 문제로 인해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우미(2009)는 시간과 효율성이 지배하지 않는 학교라는 공간이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공론영역 체험의 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리를 이어가 보면 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동체 미디어 역시 이상적 공론영역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의 소통과 관련한 연구들은 상당수 진행되고 있으나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양적 연구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청소년의 사회적 소통행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청소년의 소통 문제를 바라본 연구는 더욱 드물다. 양소은과 김은미(2014)의 연구는 네트워크 미디어를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이 누구와 교류하고 소통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적인 삶의 역량을 계발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사회 및 공동체에서의 소통행위를 보고자 하는 본 연구와 주요 관심사가 가장 가깝다. 이밖에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체 미디어와 소통, 공동체 내 소통구조의 재구성 등에 대한 연구(김예란 외, 2017; 이희량, 2013; 채영길 외, 2016)가 진행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공동체 미디어에 참여한 청소년의 소통행위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의 청소년의 이상적 소통행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공동체 미디어 제작 과정을 통해 또래 및 성인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및 공

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능력을 향상시켜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문제를 다음 세 가지로 설정했다.

- 연구문제 1. 연구참여자는 신문 제작 과정에서 어떠한 공통의 문화적 경험을 하였는가?
- 연구문제 2. 연구참여자의 신문 제작 과정에서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극복 하였는가?
- 연구문제 3. 연구참여자가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개발해야 하는가?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개인이나 집단의 특이성, 이들의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사례연구 방법을 수행했고, 인터뷰 자료의 보안을 위해 한 차례의 참여관찰을 진행했다. 연구참여자는 현재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을 기반으로 결성된 모임인 ‘셋길 기자단’을 연구 참여 집단으로 의도적 표집했다. 셋길 기자단은 순수하게 마을 주민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 미디어이며, 2012년부터 매년 1~2회씩 8~10쪽 가량의 신문을 제작해오고 있다. 구성원은 40~50대 주부들과 중·고등학생들이고, 정기적으로는 매달 1회 모여 회의를 진행한다. 셋길 기자단은 주관 기관에서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 교육을 받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관이 주도하는 미디어 제작 모임의 경우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셋길 기자단은 자체 운영되고 있어 주제 및 아이템 선정에도 제약이 없으며, 다른 미디어 제작 모임들에 비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해 연구 참여 집단으로 선정했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문항을 토대로 질문하고, 청소년인 연구참여자들이 편안하게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했다. 성인이자 발행인인 연구참여자 5는 셋길 기자단 결성을 이끌었으며 현재까지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어 청소년들의 소통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연구참여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5의 발언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청소년들과의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후 별도로 연구참여자 5와의 일대일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실시했다. 인터뷰는 2020년 2월 14일 셋길 기자단의 주 모임 장소인 작은 도서관 관내에서 진행했으며, 인터뷰 내용은 사전에 연구참여자에게 동의를 받고 녹취하여 문서화했다.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질문은 전화로 추가 인터뷰를 실시했다.

<표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연령	성별	활동기간	담당코너/역할
1	19	남	4년	소설
2	19	여	4년	문화 리뷰
3	17	여	6년	기사 작성
4	16	여	3년	기사 작성
5	46	여	8년	발행인

---

## 4. 연구결과

### 4.1 사회 규범의 내재화

셋길 기자단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 관장과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2012년 결성됐다. 당시 40대이며, 초등학교 자녀들을 키우는 공통점이 있던 이들은 자녀들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소통의 단절을 우려하고 있었고, 이러한 고민을 보다 능동적으로 해결해보고자 청소년들과 함께 만드는 마을 신문을 기획했다. 당초 셋길 기자단의 성격은 청소년과 성인 구분 없이 같은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이 살아가는 마을에 대한 정보를 취재하여 신문으로 제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초기 멤버 자체가 관장 및 자원봉사자들과 그들의 자녀, 친구에 한정돼 있어 자연스럽게 세대 간 구분이 지어지게 됐고, 그 결과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도서관에 잘 오던 아이들도 중학교만 들어가면 오지 않았어요. 청소년들하고 더 얘기하고 싶어서 뭔가 같이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신문을 만들게 됐죠. 어른과 아이가 동등하게 신문을 만들어가자는 생각이었는데, 편하게 잘 떠들다가도 회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애들이 말을 안 했어요. 회의하면서 정적이 흐르면 어쩔 수 없이 어른들이 더 얘기할 수밖에 없죠.” (연구참여자 5)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하고 대화가 뚝 끊기잖아요. 도서관 다니면서 자주 본 아주머니들이기는 했지만 전에는 일상적인 얘기만 나눴지 그렇게 진지한 주제로 오랫동안 얘기해본 적은 없어서 처음 회의할 때는 어색했어요.”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들의 말처럼 평소의 대화 상황과 다르게 ‘회의’라는 상황이 주어지자 청소년들이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연구자가 직접 셋길 기자단의 회의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는데,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가볍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청소년들이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회의를 주도하는 성인이 의견을 묻기 전까지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활동 기간이 오래된 청소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결성 초기에 성인들이 주로 했던 것처럼 조금 더 의견을 내고 회의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도록 노력하기도 했지만, 활동 기간이 짧은 청소년들은 순서대로 자신의 발언 차례가 올 때까지 가만히 듣기만 하는 모습이었다.

“어른들이 우리보다 더 생각이 깊은 것 같아서 어른이 의견을 내면 그냥 수긍하는 편이에요.” (연구

---

참여자 4)

“어른들이 얘기하면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전부터 잘 알던 분들이라 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 3과 4의 발언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인의 권위를 내재적으로 받아들여 성인들의 발화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연구참여자 4는 ‘어른의 말 = 옳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으로 인한 사회적 권력의 차이, 사회 관례적으로 정당화된 규범을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슈츠(Schutz)의 말을 인용해 “생활세계의 비축지식은 상황에 결부되었던 경험들의 침전물로 구성된다. …(중략)… 이들 모두에서 중요한 것은 특수하고 구체적이며 가변적인 경험이 아니라 생활세계 경험 일반의 기본 구조(Habermas, 2006b, p. 209, p. 211)”라고 설명한다. 청소년들은 생활세계 안에서 이미 경험한 성인과의 관계에 기반하여 셋길 기자단 내 성인 구성원들과도 자연스럽게 권력 관계에 자신들을 위치시킨 것이다. 이어지는 연구참여자 1과 3의 발언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화가 끊길 때는 어른들이 주로 얘기하시고, 발행인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죠. 아무래도 그럴 때 어른들이 저희보다 신경 쓰이고 부담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발행인이 얘기하신 다음에 아무도 말을 안 할 때가 있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다들 할 말이 없을 때. 발행인이 독재하시는 건 아닌데 그런 때 분위기가 미묘했죠. 뭐라도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연구참여자 1)

“오히려 어른이 당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그분 말에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 생각 얘기했는데 그분은 제 말투가 화내는 줄 아셨대요. 화를 내진 않으셨는데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하면서 오해는 풀었어요.” (연구참여자 3)

이처럼 연령으로 인한 차이는 청소년들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어른’이라는 것이 성인들에게는 부담감으로 작용하거나 청소년의 반대 의견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특히 연구참여자 1이 설명한 상황은 발행인으로서의 책임감, 성인으로서의 부담감이 다른 멤버들이 느끼는 권력의 미세한 차이와 충돌하는 지점이었다. 이와 같이 셋길 기자단은 소통을 위해 결성됐지만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지점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3이 설명한 ‘말투’에 관한 문제는 언어 중심적이었던 하버마스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

---

분이기도 하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행위자들이 언어의 상징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따르는 그 규칙이 다른 참여자들의 행위 규칙에도 맞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기대 속에서 언어적 표현을 한다고 봤다 (Habermas, 2006b). 하지만 몸짓이나 표정, 어투와 같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은 이처럼 ‘언어 이상의 어떤 것’을 만들어내며 합리적 의사소통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4.2 비판적 자기반성을 통한 식민화의 극복

셋길 기자단의 구성원들은 이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와 코너 선정, 발행 면, 발행 시기 등 신문 제작에 필요한 부분을 전부 청소년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는 시도를 해왔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능동적으로 신문 제작에 참여했다. 당초 성인들은 마을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해 ‘마을’과 ‘소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으나, 청소년들은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여겼다. 연구자는 다음 호를 위한 주제 선정 회의를 관찰했는데, 청소년들은 각자 친구들을 대상으로 최근의 관심사를 조사해 회의 현장에서 다양하고 기발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처럼 공동체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굳이 ‘마을’이라는 주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보다는 구성원들의 공통 관심사를 다루면서 공동체 내 소통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우리 마을을 주제로 해서 회의를 하는데 애들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더 말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을 택할 거냐, 아이들과의 소통을 택할 거냐 고민하다 당연히 후자를 택했고, 그래서 신문 주제 정하는 것부터 애들한테 맡겨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분야로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5)

“‘마을’을 알아간다는 게 이상했어요. 어릴 때 학교에서 시키는 ‘우리 마을 알아오기’ 숙제 같고 재미가 없었는데 주제를 직접 정해보라고 하셔서 진로, 성적, 친구 문제 이런 것들로 하니까 아무래도 할 말이 많았죠.” (연구참여자 2)

하버마스는 대화를 한다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자 설득하는 것이며, 해석학적 작업인 ‘번역’을 통한 이 설득과정이 의사소통 형태의 반성이고, 이러한 비판적 자기반성이 해석학적 경험을 초월할 수 있는 한 의사소통 참여자는 비합리주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동규, 2009). 여러 차례의 포맷 변화와 시도를 거친 셋길 기자단은 영화, 소설 등 한 작품을 감상하고 이에 대해 성인 그

---

룹, 청소년 그룹이 각자 토의를 한 후에 다시 전원이 모여 전체 대화를 나누고 이를 기사화하는 섹션을 시작하게 됐다. 이는 신문 제작 회의 외에 더 깊이 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필요했던 성인들이 아이디어를 내 만들어진 섹션이다.

“아주머니들이랑 토론하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왜 잔소리를 했는지, 왜 내 얘기를 안 듣고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려고만 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어른들 얘기를 강조하지 않고 먼저 저희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어른 입장에 대해서도 말해주셔서 서로 납득이 가능한 분위기였어요.” (연구참여자 2)

“어른들이랑 책 읽고 토론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아줌마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의외로 소년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걸 느낀 적 있어요.” (연구참여자 1)

“영화 <트루먼쇼>를 보고 각자 기억에 남는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였는데,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너무 달라서 색달랐어요. 어른들도 그렇고, 애들도요. 그 사람의 (몰랐던) 성향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연구참여자 4)

이처럼 대화의 기회가 늘어나자 청소년들은 성인과 자신들을 다른 존재로 구분하고 순응하던 시각에서 다소 벗어나 성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시각을 점차 키워나가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어른으로서 충고나 훈계를 하기보다 권위를 내려놓고 청소년의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였던 성인들의 노력에서 비롯됐다. 하버마스가 상정한 ‘이상적 발화상황’에서는 타당성 주장이 이행되어야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권력이나 지위 등의 차이로 인해 타당성 주장 상황에서 이 같은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셋길 기자단의 사례는 관례적으로 정당화된 행위규범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결성 8년이 된 이 시점에서 셋길 기자단이 마주한 문제는 기존의 청소년 구성원들이 성인이 되어 나가고 새로운 구성원들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수고로움’이 다시 반복된다는 점이라고 연구참여자 5는 밝히고 있다.

“셋길신문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으니까 다들 격의 없이 얘기고 금방 융화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온 애들은 원래 멤버들이 한꺼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충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엄마들 알음알음으로 온 거라 아이들끼리도 대화가 잘 안 돼요. 어른들이 나서서 대화를 주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또 애들이 어른들을 어려워하게

---

돼요. 이끌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연구참여자 5)

전승된 문화적 지식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과 탈관습화된 법과 도덕 의식에 상응하는 사회화 유형이 확대되어 있는 사회가 합리화된 생활세계이다(유주현, 1999). 셋길 기자단과 같이 기존에 사회적으로 관습화되어 있는 연령에 따른 발언 기회의 차이, 청소년의 내재된 수동성은 자신들의 소통 행위에 대한 비판적 자기반성을 통해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이러한 소통 행위 과정에 어떠한 발화 내용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달시켜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4.3 진실성과 상호 인정을 갖춘 소통행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버마스가 주장한 이상적 담화상황에서 모든 대화 참여자에게는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 이해가능성이라는 네 가지의 타당성이 요구된다. 참여자들은 모두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 받아야 하고, 언어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갖는다. 또, 대화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막기 위한 억압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상적 담화상황은 행위자들에게 합리적 동기를 부여하고 강제 없는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담론윤리적 원칙’이다(김우미, 2009). 셋길 기자단에 들어와 신문을 만들며 성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은 ‘진실성’이다. 이는 청소년에게 성인이 보여주는 신뢰의 말과 행동이자 동시에 그러한 성인에게 청소년이 갖게 되는 믿음이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주고, 틀리다고 하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첫날 왔을 때 돌아가면서 의견 얘기하라고 했는데 생각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강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먼저 얘기하면서 제가 할 말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신 게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4)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정답은 없다’였어요. 어른들이 먼저 그렇게 얘기해주면서 무슨 얘기든 하라고 하니깐 편했어요.” (연구참여자 2)

위 연구참여자들의 답변에서와 같이 “정답은 없다”는 말로 다양한 입장과 의견에 대하여 항상 열어두고, 어떤 이야기에도 “틀린 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것은 충분히 준비

---

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행위가 뒷받침되면서 진실성을 획득할 수 있다. 걸맞은 호칭을 불러주는 것도 청소년이 자신을 성인과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고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생활세계는 상호 인정의 복합적 관계망이며, 여성, 청소년 등 소수적 사회 집단은 개별적 문화 혹은 언어에 기초한 호혜적 인정 관계를 추구한다(유주현, 1999). 체계의 권력관계로 인해 집단 간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지만 생활세계의 상호 인정이 ‘정답은 없다’는 언어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가끔 마감 독촉할 때는 발행인이 일부러 ‘작가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럼 그냥 하는 말인 걸 알면서도 웬지 더 책임감이 생긴다고 해야 하나? 어른과 아이가 아니라 동등하게 같이 일하는 입장이 된 것 같았어요.” (연구참여자 1)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거침없이 얘기할 때가 더 즐거웠어요. 아이들 생각도 더 잘 알 수 있었고, 새로 들어온 친구들은 아직 우리를 ‘어른’, ‘선생님’으로 보고 착한 말만 하려고 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그럼 셋길 기자단을 하는 의미가 없죠.”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5의 마지막 말에서 셋길 기자단을 하는 의미는 단지 깔끔하고 합리적인 소통을 나누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과의 더 치열하고 깊이 있는 대화라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셋길 기자단이 진실성을 통해 이상적 담화행위를 추구하려고 시도한 것은 하버마스 생활세계론의 핵심인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해 서로 다른 개인이 억압 없이 자유롭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고, 이상적 소통으로 ‘합의’를 도출해나가고,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공동체 미디어 제작 과정을 통해 성인들과 소통하며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기 위해 공동체 미디어인 셋길 기자단을 연구참여 집단으로 선정해 FGI 및 일대일 인터뷰를 통해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첫 번째 연구문제였던 공통의 문화적 경험은 성인과의 일상적인 대화가 아닌 깊이 있는 대화에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신문 제작을 위한 회의 과정에서는 단순한 안부 인사나 가벼운 대화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밝혀야 하는 만큼 청소년들이 선뜻 의견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순서대로 의견을 내는 방식을 쓰기

---

도 하는데, 이는 상호 이해가 빠진 의사소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소통의 원인이 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연령 차이에 의한 사회 규범이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성인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보다 우월한 것으로 생각해 우선시하면서 비합리적 의사소통이 이뤄지게 된다.

두 번째로 생활세계의 식민화 경험과 극복 방법에 대한 연구문제는 ‘하달식’ 소통 방식에 대한 성인들의 인식 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결성 초기 성인들은 공동체와 소통을 모두 중요시하면서 자신들이 정한 주제에 대해 청소년과 같이 마을 신문 만들기 작업을 시도했지만 이는 청소년의 흥미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계기로 성인들은 회의를 거쳐 청소년과의 소통에 더 집중하기로 결정했고, 발행 주제를 비롯한 모든 결정을 청소년에게 맡기는 것으로 변화했다. 이 과정에서 성인들은 어른들의 발언이 더 무게를 갖고, 먼저 발언권이 주어지는 사회적 관습을 무너트리려고 노력했고, 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성인과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게 했다.

이상적 담화상황을 위해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향상에 대한 마지막 연구문제에서는 하버마스가 주장한 합리적 의사소통에 대한 타당성 요구에 맞춰 분석한 결과, 진실성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청소년들은 먼저 신뢰를 보여주고,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성인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더 자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었고, 이는 신문 제작 회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을 통해 공동체 미디어라는 특수한 집단을 구성하는 청소년과 성인의 소통행위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 결과, 청소년과 성인으로 구성된 미디어 제작 집단 안에서 이뤄지는 이상적 담화를 위한 시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하버마스의 일부 논의에만 집중해 보다 복합적인 의사소통의 구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의 탐구와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참고문헌

- 강진숙 (2005). 미디어 능력의 개념과 촉진 사례 연구: 독일의 연방 프로젝트 -학교를 네트워크로 (Schulen ans Netz)-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3), 52-79.
- 김동규 (2009). 하버마스의 형식 화용론 연구: 입장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17), 35-64.
- 김예란, 김용찬, 채영길, 백영민, 김유정 (2017). 공동체는 발명되어야 한다: 서울시 마을미디어 형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1(1), 40-74.
- 김우미 (2009). 시민성의 전제로서 의사소통 합리성. 시민교육연구, 41(2), 47-71.
- 나은영, 김은미, 박소라 (2013).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공감능력 : 면대면, 음성 및 문자매체 따돌림 가해와 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7(6), 606-635.
- 니클라스 루만 (2015). 사회이론 입문. 서울: 이론출판.
- 두진영 (2008).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이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의 자기표현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정신보건, 14, 1-29.
- 박은미 (2009). 의사소통과 실존적 상호소통: 하버마스와 야스퍼스의 소통 개념에 관하여. 시대와 철학, 20(3), 309-353.
- 박종대 (2001).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행위이론」에 관한 연구. 사회와 철학, (1), 169-205.
- 박홍원 (2012). 공론장의 이론적 진화: 다원적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 언론과 사회, 20(4), 179-229.
- 백민정 (2007). 학교·가정서 대화 단절 청소년 ‘자살’ 충동에 쉽게 빠진다. 검색일자: 2020.08.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275839>
- 양소은, 김은미 (2014). 누구와 소통하는가: 연결된 청소년의 공동체적 삶 역량 계발. 한국언론학보, 58(1), 5-38.
- 위르겐 하버마스 (2006a). 의사소통 행위이론 1: 행위합리성과 사회합리화. 파주: 나남.
- 위르겐 하버마스 (2006b). 의사소통 행위이론 2: 기능주의적 이성 비판을 위하여. 파주: 나남.
- 유주현 (1999). 생활 세계와 합리성: 하버마스에게서의 생활 세계의 합리화 문제. 철학과 현상학 연구, 13, 221-237.
- 이정춘 (2003). 미디어와 사회. 서울: 세계사.
- 이철 (2015). 사회의 유일한 구성요소로서의 소통: 사건과 형식으로서의 사회. 한국사회학, 49(4), 235-259.
- 이희량 (2013). 공동체미디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지역 중심의 소통 공동체적 관점과 실천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임순선 (2013). 하버마스 의사소통 행위이론에 기초한 모-청소년자녀 의사소통행위 분석. 시민청소년학연구, 4(2), 24-50.
- 채영길, 김용찬, 백영민, 김예란, 김유정 (2016). 서울시 마을공동체미디어와 공동체 공론장의 분화와 재구성. 커뮤니케이션 이론, 12(2), 4-46.

- 
- 최영송 (2012). 들뢰즈 관점에서 본 하버마스 화용론의 한계. 커뮤니케이션 이론, 8(1), 101-141.
- 토머스 고든 (2002). 부모역할훈련. 서울: 양철북.
- EBS (2012). 이슈토크 - '대화 단절'이 위기의 청소년 만든다. 검색일자: 2020. 03. 08. [http://news.ebs.co.kr/ebsnews/sub\\_0200\\_news\\_view.jsp?news\\_id=EN3108000](http://news.ebs.co.kr/ebsnews/sub_0200_news_view.jsp?news_id=EN3108000)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k, Min-jung (2007). Discontinuation of Conversations at School and at Home, Teenagers Easily Fall into The Urge to Commit Suicide. Retrieved August 21, 2020,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275839>
- Chae, Young-Gil, Kim, Yong-Chan, Baek, Young-Min, Kim, Ye-ran & Kim, Eu-jong (2016). Mael Community Media and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ty Public Sphere in Seoul. *Communication Theories*, 12(2), 4-46.
- Choi, Young-song (2012). Critical Review on the Habermas's Pragmatics of Communication: Through the Perspective of Deleuze's Pragmatics. *Communication Theories*, 8(1), 101-141.
- Du, Jin-Young (2008). The Effectiveness Evaluation of a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 teenagers. *Community Mental Health*, 14, 1-29.
- EBS (2012). Issue Talk-'Disruption of conversation' makes youth in crisis. Retrieved March 08, 2020, from [http://news.ebs.co.kr/ebsnews/sub\\_0200\\_news\\_view.jsp?news\\_id=EN3108000](http://news.ebs.co.kr/ebsnews/sub_0200_news_view.jsp?news_id=EN3108000)
- Gordon, T. (2002).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 The Proven Program for Raising Responsible Children*. Seoul: Yangcheolbook.
- Habermas, J. (2006a).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1*. Paju: Nanam.
- Habermas, J. (2006b).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2*. Paju: Nanam.
- Kang, Jin-Suk (2005). A Study on the Concept of Media-Competence and Promotion Policy: Focusing on the Initiative "Schulen ans Netz"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9(3), 52-79.
- Kim, Dong-gyu (2009). The Study on Habermas' Formal Pragmatics : Focus on Changing His Perspective. *Korean Society for Social Philosophy*, (17), 35-64.

- 
- Kim, Woo-Mee (2009). Communicative rationality as a premise of citizenship.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1(2), 47-71.
- Kim, Ye-ran, Kim, Yong-Chan, Chae, Young-Gil, Baek, Young-Min & Kim, Eu-jong (2017). Community Should Be Invented : Focusing on Maeul Media in Seoul. *Korean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 Information*, 81(1), 40-74.
- Lee, Chul (2015). Kommunikation as The Only Component of The Society - the Society as Event and Form.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9(4), 221-237.
- Lee, Hee-Rang (2013). A Study on New Paradigm of Community Media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Seoul.
- Lee, Jung-chun (2003). *Media and Society*. Seoul: Segyesa.
- Lim, Soon-Sun (2013). Analysis of Mother-Adolescent Children Communicative Action Based on Haberma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The Journal of Civic Youth Studies*, 4(2), 24-50.
- Luhmann, N. (2015). *Einführung in die Theorie der Gesellschaft*. Seoul: Ilonchulpan.
- Na, Eun-Yeong, Kim, Eun-mee & Park, So-ra (2013). Influences of Adolescents' Social Capital and Empathy on Face-to-Face, Voice, and Text-Mediated Bullying.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7(6), 606-635.
- Park, Chong-Tai (2001). Study on Communicative Action Theory of Habermas. *Korean Society for Social Philosophy*, (1), 169-205.
- Park, Eun-mi (2009). On the Concept of Habermas's Communication and Jaspers's Existential Communication. *Epoch and Philosophy*, 20(3), 309-353.
- Park, Hong-Won (2012). Theoretical Evolution of the Public Sphere: Implications for Pluralistic Democracy. *Media & Society*, 20(4), 179-229.
- Yang, So-eun & Kim, Eun-Mee (2014). Who are They Communicating with: Connected youth's Development of Competencies of Civic Lif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8(1), 5-38.
- Yoo, Joo-Hyun (1999). The Lifeworld and Rationality: The Problem of Rationalization of The Lifeworld from Habermas. *Phenomenology and Contemporary Philosoph*, 13, 221-237.